

# “사회적 약자 대중교통 이용 차별 경험”

### 제주대 법전원 2019년 제주도민 인권실태 조사 응답자 58% “저상버스도 장애인 승차 배려 부족”

제주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등은 23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22호에서 ‘제주도민 인권실태와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제주도민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 결과는 일반도민 300명, 노인 99명, 다문화가정 92명, 장애인 110명, 행정기관 102명, 시설종사자 100명 등 도민 9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진행, 도출된 것이다.

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가 대중교통(택시 포함)을 이용했을 때 가장 많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 노인 29.3%, 다문화가정 21.7%, 장애인 29.1%로 문항에 있던 8개 장소 가운데

대중교통이 가장 많이 꼽혔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A(84)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승·하차시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해 몸이 휘청거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기사가 빨리 타라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버스와 보도간 거리, 정류장 시설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 도입된 저상버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4%가 장애인 승차가 어려운 지점에 정차했고, 그나마 탑승한 후에

도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34%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영호 교수는 “취약계층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 제시,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권침해나 차별금지 등을 위한 조사구체 행정이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9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이용자 부문 1위, 서비스 부문 2위, 행정 및 정책지원 부문 3위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halla.com



제주농협은 지난 20일 서울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도, 도의회,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감귤 가격지지를 위한 소비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 제주농협 노지감귤 소비확대 ‘사활’

### 전국 대형 마트서 특판행사 임직원 감귤소비촉진 운동 공기관도 감귤 홍보에 동참

의 평균 도매가격은 5kg 기준 지난해 8568원에서 올해는 6448원대로 2120원(14.7%)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5600~5700원대를 기록했다.

제주농협은 지난 20일 서울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도, 농협본부, 제주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감귤 가격지지를 위한 소비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농협은 전국의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참여를 위한 서한과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등을 통해 감귤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제주도

도와 행정시, 한라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소비촉진에 불을 댕기고 있다. 고향주부 모임도 오는 28~29일 부산 경남유통에서 1000상자를 판매, 소비촉진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소비촉진 목표는 5400t(가량(하루유통 2500·대형마트 2000·전자상거래 등 500·감귤 400)이며, 사업비 4억원(제주도 1억5000만원 포함)이 투입된다. 행사 기간에 하나

로유통 매장 913곳, 대형마트 7곳 등에서의 대대적인 판촉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백금탁기자

## “경자년 새해 첫날 한라산 정상에서 야간산행 특별 허용

한라산 정상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정상에서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으려는 탐방객을 위해 야간산행을 특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야간산행 허용은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서 진행되며, 2020년 1월 1일 새벽 0시부터 탐방이 가능하다.

새해 야간산행은 2012년 8337명, 2013년 5411명, 2014년 6728명, 2015년 734명(대설경보 발령), 2016년 5876명, 2017년 5808명, 2018년 8370명, 2019년 5132명으로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는 행사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라산국립공원 직원 80여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산안전대원, 한라산지킴이 등 지원인력 30여명도 추가 배치돼 탐방객 안전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급적 2인 1조로 팀을 이뤄 탐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내년엔 초등학생·병설유치원 졸업식 23일 도내 처음으로 제주시 신촌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졸업식이 거행된 가운데 유치원 졸업생들이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 “내년 1월 중순~하순 눈 내릴 듯”

### 제주지방기상청 분석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12월 한달간 제주지역에 눈이 내리지 않는 등 이례적인 기상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18일 사이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20년간 제주지역에서는 12월

한달 간 평균 6.2일 눈이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고지대 산간만 눈이 내렸을 뿐 해안 도심지역은 눈이 내리지 않았다. 또 지난해에도 제주 해안 지역에서는 눈이 쌓인 날이 거의 없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은 12월에 기온이 높은 이유로 대기 상층(고도 5km 이상)에서는 시베리아 북쪽에 강한 바람(한대 제트)이 위치하면서 북극의 매우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는 것을 저

지하고 있는 것과 대기 하층(고도 1.5km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북쪽 한기가 남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 2가지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중순에는 일시적으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져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월 하순에는 점차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 어제부터 겨울방학 시작

제주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가 23일부터 잇따라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이날 방학을 연 신촌초를 시작으로 118곳이 학교별 학사 일정에 맞춰 방학을 맞는다. 중학교는 30일 애월중부터 45곳이, 고등학교는 23일 서귀포여고를 시작으로 30곳이 방학에 돌입한다. 특수학교도 이날 말부터 방학을 맞는다. 김지은기자

제27회 The 27th Seongsan Sunrise Festival

# 성산일출축 축제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등재 12주년 기념

## 2019. 12. 30(월) ~ 2020. 1. 1(수)

###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일원 및 성산읍 일대

**주요프로그램**

- 12월30일(월) : 성산오조지질트레일 트래킹 등
- 12월31일(화) : 일출희망퍼레이드, 성산팝스타, 성산클럽데이, 개막축하공연, 신년카운트다운 등
- 1월1일(수) : 불꽃놀이, 강강술래 한마당, 일출나이트, 일출기원제, 새해맞이 길트기, 떡국나눔, 등반권 배부 등
- \*1월1일 오전 일출봉 등반은 1,300명 선착순으로 등반권 수령자에 한해 등반가능합니다.
- 축하공연 출연진 : 개그맨 락빅 및 이창호, 왁스, 진시몬, 구나운, 신혜, 양정원, 사우스카니발 등

**상설 / 특별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 홍보관, 지역특산물 홍보관, 포춘카페, 소망우체국, 행운롤렛, 복(福)방향제 만들기 등

**테마별 프로그램**

- 자연체험테마 : 2020 일출 바닷길 걷기, 세계자연유산 홍보관
- 공연체험테마 : 해녀물질공연, 개막축하공연, 일출희망퍼레이드, 일출나이트, 불꽃놀이 등
- 신년체험테마 : 포춘카페(신년운세 및 타로), 글쫄자르기, 일출기원제, 떡국나눔 등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성산일출축제위원회**